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2

▶ 53회 예고
수상 칼라따까와 제관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이 수시마 왕자를 편애하자, 모사를 꾸민다. 아쇼까 왕자에게 특별휴가를 주어 빠딸리뿌뜨라로 오게 한 뒤, 지병에 시달리는 빈두사라왕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한 계책을 세운다.



# 데비 부인, 딸 상가밋따를 잉태

비구름이 하늘을 순식간에 덮었다. 숫빠라까는 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했다. 경비대장은 살갗을 스치는 축축한 바람을 느끼면서 아쇼까가 머무는 방으로 올라갔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에 시달리곤 했으므로 습한 바람이 반가웠다. 그러나 경비대장은 숫빠라까를 곧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눅눅한 바람은 우기가 사막을 성큼성큼 건너오고 있다는 징후였다. 아쇼까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경비대장을 맞았다.

"짐들을 챙기시오."

"예, 일행에게 지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우기가 빨리 오는 것 같소."

아쇼까의 지시를 받은 경비대장은 곧 방을 나갔다. 이번에는 데바가 아쇼까 방에 들어왔다.

"경비대장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소."

"방금 대장에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상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제야 아쇼까가 의자에 앉았다. 데바도 탁자 너머 맞은편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우리 정찰조 군사를 보호해 주었으니 우리도 그에게 뭔가를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숫빠라까의 교역권을 선물하지 않았소?"

"교역권은 공식화시킨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그가 이곳의 교역권을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줄 것이 또 있다는 말이오?"

"이곳 상인수장은 뿐다라마를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사문이 없는 라마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문을 어디서 초빙해 해결해 준다는 말이오?"

"비베깐난다 사문을 이곳에 두고 가면 해결될 일입니다."

"사문이 거칠고 난폭한 이곳에 남으려고 하겠소?"

"옛 앙가국 짬빠에서 올 때부터 사문은 뿐나 존자가 살았던 숫빠라까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뜻을 전하면 아주 행복해 할 것입니다."

데바의 말은 사실이었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데바에게 몇 번이나 숫빠라까에서 뿐나 존자가 이루지 못한 전법의 꿈을 펼쳐보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쇼까는 즉시 데바의 뜻에 동의했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수장님이 결정하시면 됐지 내가 간여할 일은 아닌 것 같소."

"아닙니다. 부왕님께서 이곳 상인수장에게 말씀하셔야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아쇼까는 자신의 체통을 세워주려는 데바의 마음을 간파했다. 아쇼까는 경비대장을 시켜 비베깐난다 사문과 숫빠라까 상인수장을 불렀다. 모두가 낮인데도 캄캄한 날씨 때문에 외출하지 않고 방에 있었으므로 금방 아쇼까 방으로 올라왔다. 아쇼까가 비베깐난다 사문에게 먼저 말했다.

"사문이시여, 여기 숫빠라까에 남으시겠소?"

"소승은 데바 수장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저는 산치 절을 함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데바 수장께서 벌써 허락했소."

아쇼까가 데바를 쳐다보자, 데바가 말했다.

"사문께서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 데바 수장님께서 소승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아닙니다. 꿈을 이뤄주신 분은 숫빠라까 상인수장님입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님께서 뿐나라마를 복원하신다고 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놀랐다. 갑자기 뿐나라마에 상주할 사문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놀란 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아쇼까가 데바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 사람들이 흉악하고 거칠다고 하니 비베깐난다 사문께서 뿐나라마에 머물면서 교화하기를 바라오."

"부왕이시여. 소승은 뿐나 존자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전법의 꿈을 이어받겠습니다. 뿐나 존자께서 요절하지 않고 오래오래 사셨다면 이곳 사람들은 어느 지역보다 유순하고 자애로웠을 것입니다."

아쇼까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하인들이 은쟁반에 포도주와 코코아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다. 어느 새 창밖은 검은 장막을 걷어버린 것처럼 밝았다. 창을 투과한 햇살이 유리항아리에 비쳤다. 유리항아리 속의 포도주가 붉은 안료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경비대장이 아쇼까에게 다가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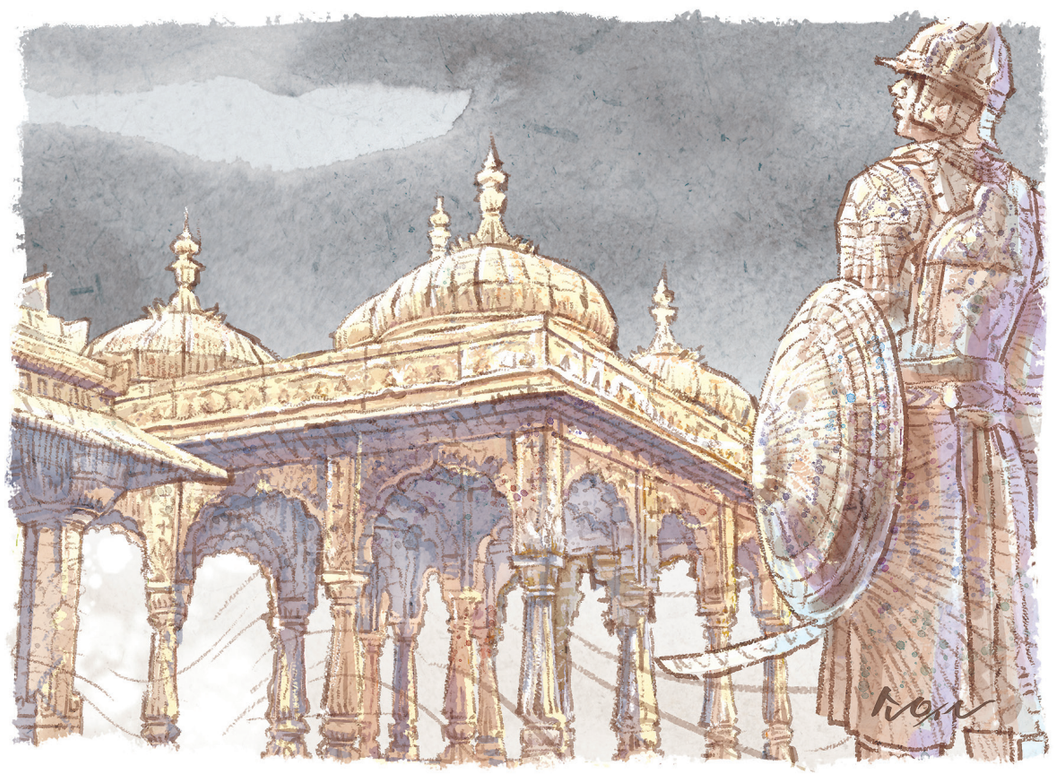
"날씨가 좋아졌으니 숫빠라까 왕궁으로 가시겠습니까? 순행단 일행을 위해 환송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아쇼까는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저택에만 머물다가 가는 것보다는 초라한 왕궁이지만 왕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나빠따라국은 이미 마가다국 시절에 복속된 나라지만 그 명맥은 마우리아왕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빈두사라 대왕은 사라진 옛 왕국들의 혈통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름만 왕인 그들을 앞세워 통치하는 데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퇴락한 왕궁은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저택에서 가까운 고지대에 있었다. 상인수장의 저택에 비해 왕궁은 처량한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했다. 그래도 벽돌 건물로 된 연회장은 규모가 작을 뿐 기품이 느껴졌다.

아쇼까 일행은 일부만 연회에 참석했다. 작은 무대에는 사바르마티강 강변에서 보았던 늙은 악사들이 현악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표정했고 무기력했다.



연회장 밖에서는 하인들이 군사처럼 칼을 차고 경비를 섰다. 왕에게 군사를 운용할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경비대장을 불러 나지막하게 말했다.

"쯧쯧. 군사가 없으니까 해적들이 발호하는 것이오."

"부왕님, 이곳에 군사를 파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곳 질서를 무력으로 잡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오. 그런 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비조장이 이곳에 남아 하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어 해적들을 막는 것이 좋겠소."

"경비조장에게 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술이 몇 순배 돌자 연회가 무르익었다. 아쇼까가 옆자리에 앉은 왕에게 말했다.

"하인들은 얼마나 되오?"

"집으로 돌아간 하인까지 합친다면 1백 명이 넘습니다."

"하인들을 왜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오?"

"이곳 상인수장이 경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아쇼까는 숫빠라까 상인수장에게 물었다.

"왕궁 하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면 어떻겠소? 해적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오."

"이곳에는 군사훈련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유감입니다."

"검술에 달통한 나의 경비조장을 남기고 가겠소. 운용비를 지원하겠소?"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합장한 두 손을 이마까지 올리며 아쇼까에게 맹세했다.

"부왕님이시여,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숫빠라까를 지키는 군사가 생긴다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수나빠란따국 왕이 몹시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해적들에게 당한 수모와 피해가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던 것이다. 아쇼까가 왕을 위로했다.

"숫빠라까가 평화로워야 마우리아왕국의 영광도 더하는 법이오. 내가 여기에 순행을 온 이유이기도 하오."

환송연이 끝나갈 무렵, 아쇼까가 웃자인에서 데리고 온 경비조장을 불러 세웠다. 그런 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명했다.

"나는 나의 경비조장을 숫빠라까 군사를 훈련시키는 대장에 임명하겠소! 왕과 상인수장은 대장을 믿고 협조하기 바라오."

"부왕님 만세!"

연회장에 박수가 터졌다. 마치 사라진 수나빠란따국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숫빠라까의 왕과 상인수장, 주민 유지들이 환호했다. 젊은 경비조장도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 웃자인 왕궁에서 경비조장을 하기보다는 숫빠라까에서 훈련대장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경비조장은 아쇼까를 따라온 군사 중에서 누구보다도 야심만만했던 것이다.

이틀 뒤.

아쇼까 일행은 숫빠라까를 떠났다. 예전의 수나빠란따국 순행은 예상보다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웃자인에 도착할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었다. 행군 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몰랐다. 다행이 우기는 시작되지 않았고 아쇼까 일행 가운데 낙오한 군사는 아무도 없었다. 아쇼까 일행이 웃자인에 도착하자 성문을 열고 호위대장이 달려나와 맞았다. 그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소리쳤다.

"부왕님이시여, 그동안 성 안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쇼까를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과 성민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아쇼까는 은근히 데비가 나와 맞아주기를 원해다. 그러나 데비와 아들 마힌다는 아쇼까 일행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쇼까가 옆에 있는 호위대장에게 물었다.

"부왕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아닙니다. 왕궁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 것이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쇼까가 호위대장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환영하지 않는 것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오?"

"부왕님, 부왕비님께서는 아기를 잉태하고 계십니다. 데바 부인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군!"

아쇼까는 금세 표정을 바꾸었다. 데비는 시중드는 시녀들과 함께 접견실에 나와 있었다. 마힌다가 접견실 탁자를 붙잡고 아장아장 걸어 다녔다. 아쇼까는 데비와 마힌다를 보는 순간 순행 길의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쇼까가 마힌다를 덥썩 안으며 데비에게 다가갔다. 아쇼까가 눈치를 주자 시녀들이 접견실을 나갔다.

아쇼까가 데비의 배를 만졌다. 볼록한 배가 꿈틀거렸다. 마힌다가 아쇼까의 거칠거칠한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데비, 뱃속의 아기야말로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오."

"어제 제관님이 말씀했어요. 딸일 거라고요. 딸이라면 우리가 지어놓은 이름이 있지요."

"당신이 원한 대로 상가밋따로 하시오."

상가밋따는 아쇼까가 지었지만 데비가 결정한 이름이었다. 아들 마힌다 이름을 지을 때는 몇날 며칠을 고민했지만 상가밋따는 단 한 번에 합의했던 것이다. 사문을 믿고 의지하는 데비로서는 그보다 정겹고 아름다운 이름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계속〉

간화선 실참의 터전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